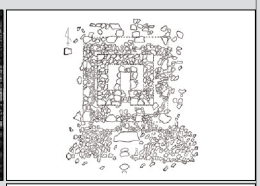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07



吉林省 蛟河 渤海 七道河子 遺蹟의 再認識

A Re-evaluation of the Bohai Qidaohezi Site in Jiaohe City, Jilin Province

崔 正 凡 한빛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

Ⅰ. 머리말

Ⅱ.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구조와 특질

Ⅲ. 출토유물의 연대와 성격 검토

Ⅳ.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재인식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吉林省 蛟河市 天崗鎭 七道河子村에 위치하는 유적은 牤牛河 북안의 北大山 자락에 단독 조성되었다. 유적의 성격은 현재까지 역참, 사찰지, 고분 등으로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발굴조사 간보의 내용을 토대로 유적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한 정밀 검토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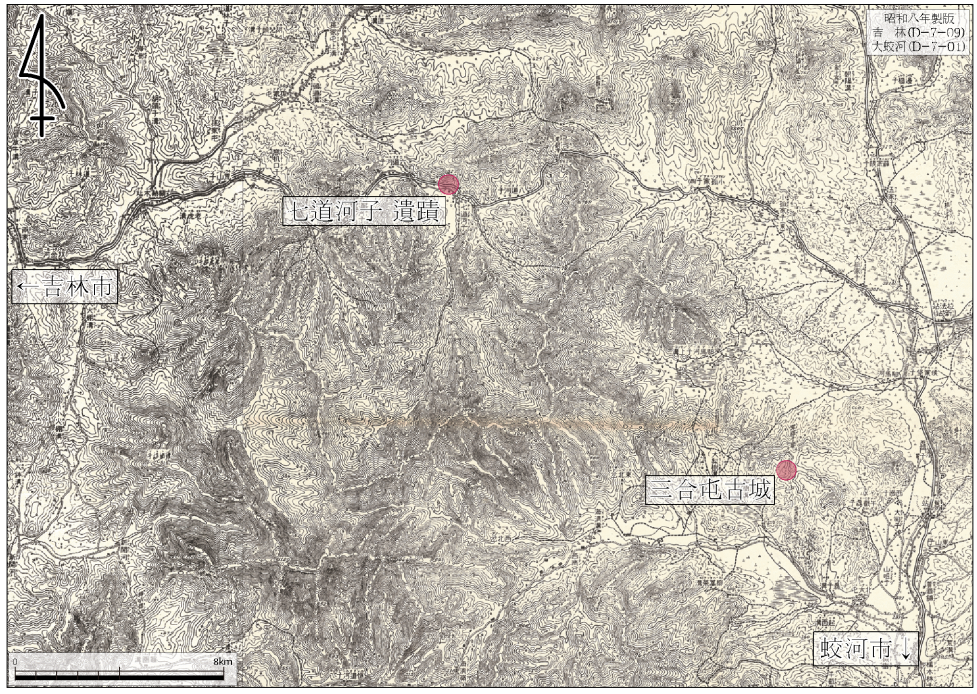
유구는 평면 回子形의 건물지로 내부는 석실 형태의 중심시설이 반지하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를 담장과 초석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 자연 경사면을 따라 계단 시설이 조성되었다. 유물은 암막새 · 수막새 · 치미편 · 杯 · 풍탁 등이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대체로 8세기 중엽~9세기 전반경으로 비정된다. 특히 계단 주변에서 '行業淨神…'의 비석 편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형태와 출토유물의 성격을 참고할 때 칠도하자 유적은 敦化 六頂山 Ⅰ-ST11, 龍頭山 龍海古墳群 J1과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다. 더욱이 출토 유물의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殯葬의 장소 혹은 祀廟등과 같은 의례적 성격의 유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 渤海, 七道河子 遺蹟, 古墳, 寺刹, 殯葬, 祀廟

Ⅰ. 머리말

中國 吉林省 蛟河市 天崗鎭 七道河子村에 위치하는 유적은 七道河村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져 七道河와 冰葫蘆溝河가 牤牛河로 합수하는 북안의 높게 솟은 산기슭 사이 작은 산등성이인 北大山 자락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은 鄕道에 인접하며 그 북쪽은 老爺嶺 지맥의 남쪽 변두리에 해당한다. 유적의 남쪽으로 5m 떨어져 松花江의 지류인 牤牛河가 흐른다. 이를 따라 동-서 방향의 협곡평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쪽으로 吉林市, 동쪽으로 蛟河市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도면 1] 칠도하자 유적의 위치(1933년 지형도, 일본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유적의 존재는 1940년대에 발견되었고, 1985년 길림성의 문물조사 당시 사찰지 북쪽이 동-서 방향으로 뻗은 너비 16m의 마을 길로 파괴된 것이 발견되었다. 유적의 면적은 약 500㎡이며 도로공사로 절개된 단애면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문화층은 0.6m 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 이에서 연화문 · 권초문 와당 각 1점씩과 지압문 · 사선각문 · 원문 · 십자문 등의 여막새[句滴] 8점도 수습되었다. 수습된 기와의 유형이 吉林省 汪清縣 鷄冠 · 中大肚川 · 紅云 · 幸福 · 駱駝山 등의 발해 사찰지에서 출토된

동일 유형의 유물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보고자는 칠도하자 유적을 발해 京 · 府 · 州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불교사찰 유적으로 인식(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 114~116)하였다. 사찰의 중심에서 약 25㎡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간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 7월 길림시박물관에 의한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의 규모와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유적의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이며 天井 · 地面鋪石 · 柱础石 · 級石 · 護坡石으로 구분되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수막새 · 수키와 · 암키와 등과 치미로 추정되는 잔편 등의 와전류 · 도기 발 · 구연부편 · 주조철부 · 철제 풍탁 · 철정 등의 생활유물이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건축부재 등이 발해 유물에 근사하므로 칠도하자촌 유적을 발해의 건축유적으로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상경용천부에서 遼의 臨潢都城으로 향하는 거란도상에 유적이 위치하므로 역참[亭站] 혹은 종교적 성격의 건축유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시(吉林市博物館 1993)되었다. 이후 칠도하촌 유적을 거란도 노선상에 위치한 건축물로 이해하는 시각(魏存成 2008: 167~168)이 우세하였다.



[도면 2] 칠도하자 유적의 위치(Google Earth 위성영상)

그러다가 이 유적을 생활유적으로서의 건물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유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彭善國은 건물의 주체부에 해당하는 중심시설의 면적이 7㎡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깊이 60㎝, 면적 2㎡의 구덩이가 추가로 조성된 구조이므로 역참으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발해의 사찰임이 명확한 유적에서는 평면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 중심부에 구덩이를 파는 방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찰로도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吉林省 敦化 六頂山 Ⅰ-M5호 · 安圖 東淸 M8호 · 黑龍江省 寧安 虹鱒漁場 M2308호 등과 같이 상부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계단식의 석축묘(彭善國 2010)로 보았다.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는 견해는 이후 王志剛의 冢上作屋 연구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이에서는 칠도하자 유적을 묘상건축이 부가된 고분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장주체부의 지면 상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형태로 매장주체부와 건물의 층위가 동일하여 양자의 조성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건물지[房址] C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대는 출토 와당의 비교를 통해 발해 중기보다는 늦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칠도하자 유적의 배치가 홍운유적과 유사함을 지적(王志剛 2014)하였다.

더 나아가 宋玉彬은 칠도하자 유적 출토 와당이 裂瓣文 · 四分法 구도의 형식으로 늦어도 성왕 대화여의 상경 환도시점(794년)보다 늦지 않으며, 속말말갈인이면서도 등급이 높은 사람의 고분으로 보았다. 이는 즙와[瓦構]가 이루어진 고분은 모두 발해 귀족 가문의 묘지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宋玉彬 2023: 245~246)와 상통하는데,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는 彭善國의 견해를 수용함을 전제로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간헐적인 접근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양은경은 칠도하자 유적을 사찰지로 분류(양은경 2010: 91)하였고, 구난희는 이 유적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인식을 정리한 다음 잠정 무덤으로 간주하면서 돌담형의 외곽조형물을 갖춘 고분으로 인식(구난희 2019: 76~78)하였다.[1] 또한 박유정은 상부에 탑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탑지의 평면 구조와는 차이가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석실 혹은 석곽으로 추정(박유정 2025: 140)하고 있다.[2] 한편 발해고고학 개설서에는 이 유적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다(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21).

---

1) 영안 홍준어장 M2308호, 안도 동청 M8호와 유사함이 지적되었다.

2) 이에서는 돈화 육정산 Ⅰ-M1 · 4호와 유사함이 지적되었다.

이상과 같이 교하 칠도하자 유적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1990년 이래로 유적의 성격을 두고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사찰 등의 종교건축 · 역참 · 고분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나름의 추론을 시도했으나 해명되지 못한 맹점들도 상존한다. 사찰로 본다면 가람배치가 불분명하고 중심시설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이르지 못했다. 역참으로 보더라도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묘상건축을 갖춘 고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중심시설의 내부에서 葬具나 人骨 등 매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처럼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에 대한 추론은 나름의 근거와 약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서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 작업이 녹록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특히 기왕의 선행연구에서 칠도하자 유적에 대한 언급은 유사 사례에 대한 설명을 위한 하나의 사례 정도로서 다루어졌을 뿐, 유적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적의 성격에 대한 異論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칠도하자 유적의 재검토 시도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칠도하자 유적의 조사 내용 자체를 재검토하여 유구의 구조와 특질을 살피고, 출토유물의 연대와 성격을 검토해 봄으로써 유적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자칫 유적의 성격과 그 해석을 두고 혼란만을 가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요컨대 한정된 자료를 두고 비교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여 논리적 모순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따름은 자명하다.

그러나 기약 없는 신출 자료의 등장만을 손 놓고 기다리며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기존에 조사 보고된 유적들의 보고서를 현재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의 화두로 재점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발해고고학의 방법론 · 역사고고학적 논의가 한층 더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구조와 특질

보고문에 따르면 칠도하자 유적은 크게 天井 · 地面鋪石 · 柱础石 · 級石 · 護坡石으로 구분된다. 天井은 유적의 중앙에 조성된 유사 석실과 그를 回字形으로 둘러싼

내부 단을 지칭하는데, 유적의 중심시설에 해당한다. 이를 둘러싼 地面鋪石은 기단부에 해당하며, 외연에 등간격으로 놓여진 柱礎石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기단부의 남쪽으로 덧대어 조성된 護坡石은 유수에 의한 토사의 유실 등으로부터 건물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반보강시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국 보고문에서 구분한 유적의 구분 명칭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유적의 성격과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굳이 중심시설[天井] · 기단부[地面鋪石] · 초석[柱礎石] · 계단[級石] · 지반보강시설[護坡石]로 환치하여 칭하기로 한다.



[도면 3] 칠도하자 유적 조사현황과 평면도(吉林市博物館 1993 에서 재편집)

중심시설은 남쪽으로 입구가 트여 있으며 규모는 길이 160㎝ · 너비 100㎝ · 깊이 60㎝이다. 이를 둘러싼 담장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동-서 5m · 남-북 4.5m의 규모이다. 담장의 폭은 동-서 80㎝ · 남-북 1.3m 정도인데, 남쪽 담장의 중앙은 중심시설로 진입하기 위해 60㎝의 폭으로 트여 있다. 중심시설과 담장의 사이는 흙으로 채워져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40㎝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심시설의 상부를 기준으로 할 때 담장의 높이와 중심시설의 깊이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애초 유적의 조성 당시 중심시설을 먼저 조성했음을 의미하는데, 원지형을 반지하상으로 20㎝가량 굴착한 다음 석실과 유사한 중심시설을 조성하였다. 그와 동시에 외연에 回字形의 담장을 두른 후 사이를 흙으로 채워 넣었고 남쪽은 출입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림 3]의 左上에서 보듯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촬영된 사진을 살피면 중심시설은 담장 중앙의 출입부와 유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덧붙여 중심시설과 관련하여 보고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중심시설의 출입부이자 기단부의 남쪽에서 발견된 할석의 용도 추론에 관한 문제이다. 중심시설을 정리하던 중 남쪽 담장의 바깥에서 2매의 석재가 발견되었는데 단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길이 · 너비는 약 40㎝, 높이 1.2m 정도의 크기이다. 보고문에서는 석재의 규모와 위치로 보아 중심시설 남쪽의 통로 상단에 놓여진 楣石으로 추정하였다.

보고자의 견해와 같이 장방형의 할석이 통로 상단에 놓여진 개석이라면 중심시설 내부에도 개석의 기능을 하는 할석이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 혹은 발견되어야 함에도 그에 견줄만한 석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출입구의 상면에만 미석이 부가되었다는 점인데, 통로에만 개석이 덮여졌다는 점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특히 이 2매의 할석은 단면이 한 변 40㎝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잘 다듬어졌는데, 중심시설의 벽석이 가공되지 않은 화강암을 사용했다는 점과도 배치된다. 벽석과 담장에 사용된 할석의 형태, 중심시설의 상부에서 개석과 같은 할석이 부재한 현상 등은 이 할석이 미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和龍 龍頭山 龍海古墳群 조사 당시 발견된 石柱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M10호의 남쪽 입구를 중심으로 좌 · 우측에 각각 위치하며 각각의 크기는 42×36×123㎝ · 36×34×108㎝이다(鄭永振 1983: 72). 실제로 M10호의 묘도 좌 · 우측으로 직경 40㎝ 안팎의 주혈이 확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 86)된 점으로 미루어 길이 1.2m 내외의 석주는 묘도 좌우에 주혈을 굴착한 다음 세워졌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안도 동청 8호에서는 출입구 양측에 8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돌기둥의 형태로 장방형의 할석을 세워두었는데, 발견 당시 동쪽 기둥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서쪽의 기둥은 왼편으로 옮겨져 원상이 훼손된 상태(연변박물관 1993)였다.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의 중심시설 출입부의 남쪽 좌우에도 수습된 할석이 세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그림 3]의 右에서 보듯 평면도 상에도 기단부의 전면에 할석이 부석되어 있음에도 중심시설 입구의 남측 바깥은 할석이 부석되지 않았다. 주혈과 같은 부가 시설의 조사 내용이 기재되진 않았으나, 수습된 할석 2매는 단면의 한 변 40㎝로 잘 다듬어졌으며 애초에 출입부의 좌우측에 세워진 상태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기단부는 중심시설을 둘러싼 담장 외연의 바닥에 덧대어 조성되었는데, 길이 7.4m · 너비 7.4m의 평면 방형의 형태이며 중심시설 담장 바닥과 외연까지의 폭은 남쪽과 북쪽 1.5m, 동쪽과 서쪽 1.25m 정도로 협소한 편이다. 특히 중심시설의 외연을 따라 폭 0.6~1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여 초석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된다. 각 초석 간의 거리는 2.1~2.5m 정도로 비교적 등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면 3칸-측면 3칸의 규모로 복원 가능하다.

기단부의 초석열에서 북쪽으로 1.1m, 동쪽으로 1.3m 정도의 폭으로 할석들이 부가적으로 놓여져 있다. 동쪽은 후대 유실 등으로 원상이 명확하게 복원되지는 않는다. 반면 북쪽은 초석으로 짐작되는 할석 2매가 1조를 이루고 등간격을 유지하며 놓여있다. 이 구조물의 위치는 북쪽의 중앙에 해당한다. 바깥은 의도적으로 북쪽면을 향해 열을 이루어 조성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유적의 북쪽은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 추가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기단부의 북서쪽으로 초석과 중심시설 담장의 북면 사이에는 황갈색 니질 杯가 3단위의 군집을 이룬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북쪽의 출입시설을 통해 유입되어 놓여졌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동쪽에는 부가적인 할석군이 열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동 · 북 · 서쪽의 양상과 규모에 견주어 보면 이는 낙수받이 등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보강시설은 기단부의 남쪽 외연에 덧대어 동-서 11.5m · 남-북 3.6m 규모로 소형 화강암과 천석을 부석하여 조성하였다. 이 구간은 낙수받이 기능으로 추정되는 유적의 서 · 북 · 동쪽과 달리 남쪽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낮아지는 지점에 해당한다. 집석은 이러한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남쪽으로 낮아지는 자연 경사면의 인위적인 기반 정지나 절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자는 이를 유수에 의한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보았는데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쪽의 급경사면으로부터 유적의 유실을 막기 위한 기능과 함께 낙수받이의 기능도 동시에 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지반보강시설로 보아도 좋다.

계단은 지반보강시설의 중앙에 위치하며 자연 경사면을 따라 기단부의 중앙으로 연결된다. 폭 2m의 대형 할석과 40~85㎝ 가량의 소형 할석을 사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주축방향은 남-북이며, 전체 범위는 남쪽으로 5.6m 정도이다. 건물 외부에서 중심시설까지 장축이 일치되게 조성되었다는 특징이 관찰되며, 가장 남쪽의 계단석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이격되어 망우하와 연결된다.

한편 계단석의 주변에서 비석의 파편이 일부 출토되었는데, 단편적으로나마 식별

가능한 문자가 확인되어서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비석의 파편으로 미루어 본래 비석이 놓여진 위치가 어디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발굴조사 당시부터 비석은 계단 주변에서 파편의 형태로 수습되었기 때문에 최초 세워진 지점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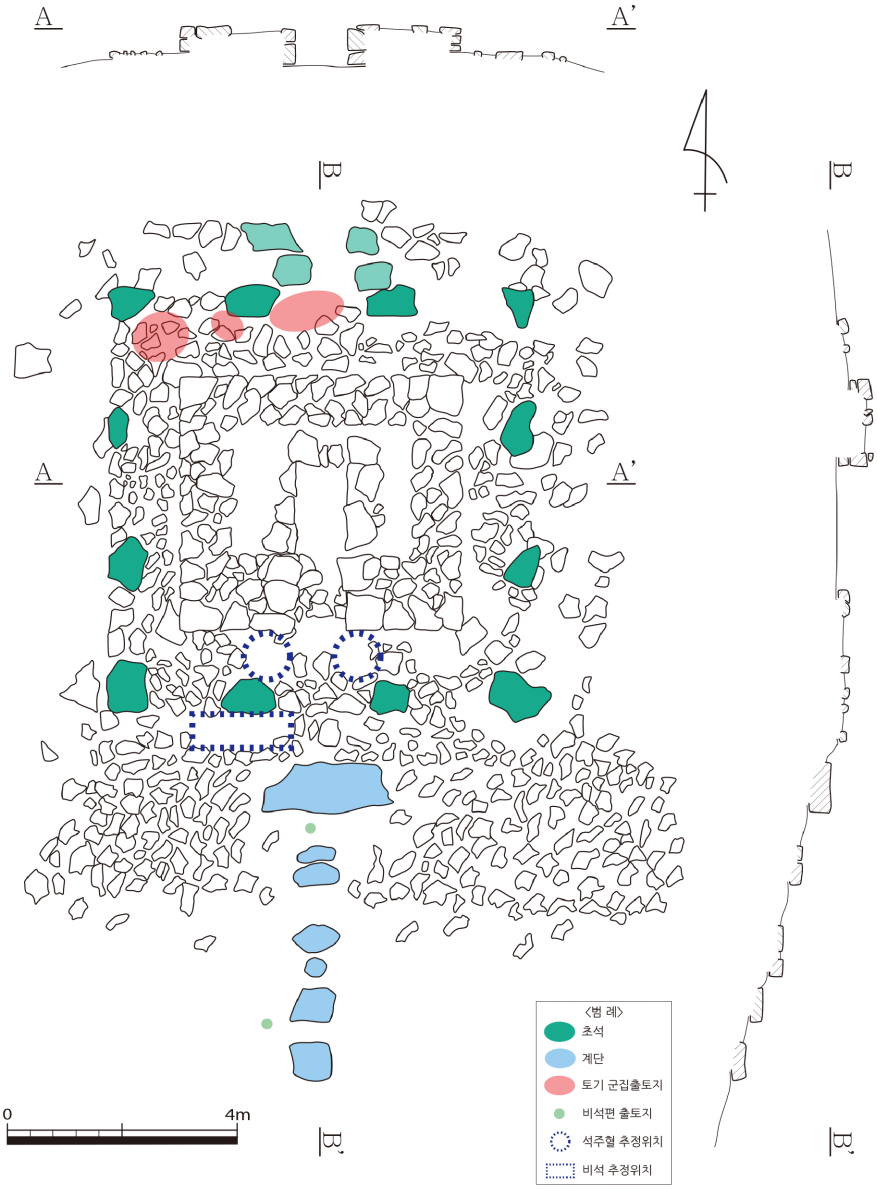
다만 비석 파편의 출토 위치가 계단석 주변이며, 계단석의 좌우로 자연 경사면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기단과 가까운 어느 지점에 최초 비석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기단부 남쪽 중앙에서 왼쪽 초석 전면부의 지반보강시설 연접 부분에 할석이 부석되지 않은 구간이 일부 확인된다.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면 길이 1.7m · 너비 0.6m 정도의 범위가 상정되는데, 비석의 파편은 그 아래의 경사면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살핀다면 기단의 중앙에서 왼편으로 치우친 지점이며 건물의 입구 바깥이자 최상단 계단석의 좌측 지점을 비석의 입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고문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칠도하자 유적의 구조를 검토해 보았다. 발굴조사 당시 보고자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적의 노출 정황과 석재들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시설은 기반층을 반지하식으로 굴광한 다음 먼저 석곽과 유사한 형태의 작은 공간을 조성한다. 이 때 이를 둘러싼 담장이 함께 조성되는데 중심시설과 담장의 벽석을 평적함과 동시에 그 내부는 흙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조성된다.

중심시설의 출입부는 담장 남쪽에 20㎝ 정도의 유단식으로 조성되었다. 중심시설 담장의 네 모서리는 당초 간보에서는 초석으로 인식하였지만, 담장 모서리의 면맞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초석이라면 그 아래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적심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림 3]의 左上에서 보듯 중심시설의 담장 벽석의 모서리이며, 그 아래로 할석이 2단 가량 평적되어 있으므로 적심보다는 석축의 면맞춤 상태로 봄이 한층 자연스럽다.

기단부는 중심시설을 둘러싼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담장의 최하단석에 인접하여 바닥석을 두르고 가장자리는 초석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단의 남쪽은 초석과 담장 사이에 특별한 부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공석 2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2매의 입석은 중심시설의 입구와 초석의 기둥 사이에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쪽의 중심시설 바깥으로는 좌우 2매의 초석이 열을 이루는데, 현재로서는 보고자의 견해와 같이 잠정 북쪽 출입시설의 초석으로 보는 편이 낫지 않나 싶다. 기



[도면 4] 칠도하자 유적의 공간구성 추정안

단의 초석과 중심시설 담장 사이의 폭이 협소한 점과 황갈색 니질 杯의 노출 정황 등은 그러한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초석 상부로 기와건물이 조성된 유적의 남쪽과 북쪽은 자연경사가 형성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계단 상단과 기단의 남쪽은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사용하여 부석하여 외관을 조성하였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보았을 때 기단부의 남쪽 초석 바깥과 계단의 최상단 좌측 사이에는 부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범위는 길이 1.7m · 너비 0.6m 정도이다.

자연경사면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조성된 계단석 주변에서 비석 파편이 확인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부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방형의 공간에는 비석이 놓여져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碑座의 역할을 했을 가공된 할석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碑身만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유적의 공간을 재구성하면 [그림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적의 폐기 양상과 관련하여 보고문에는 발굴조사 당시 층위에 대한 기술이 확인되는데, 기단부 할석 상부로 최대 4㎝ 정도의 두께로 소토층이 퇴적되어 있었고 그 위로 와적[瓦礫]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소토층 내에서는 목판과 짚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벽체의 구축 사실을 일러주며, 화재 등의 연유로 자연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출토유물의 연대와 성격 검토

칠도하자 유적에서는 와당 · 평기와 · 치미편 등의 기와류와 토기, 풍탁 등 비교적 다양한 유물들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유물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덧붙여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유적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비석의 파편도 일부 출토되어서 이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와

1985년 수습조사와 1990년 발굴조사 당시 가장 많은 출토 수량을 보이는데 암막새와 수막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암막새는 단부에 사선 방향의 각목문이 앞뒤로 부가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대롱(구멍)문 · 사엽문 등의 도안이 시문되거나 지두문이 압인되어 있다. 이는 정동귀의 a형식으로 분류되며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의 넓은 시간 폭을 갖는 것으로 이해(정동귀 2015)된다.

수막새는 역심엽협의 연판(수대)문 · 변형연문 · 권운유정문 · 연뢰문 등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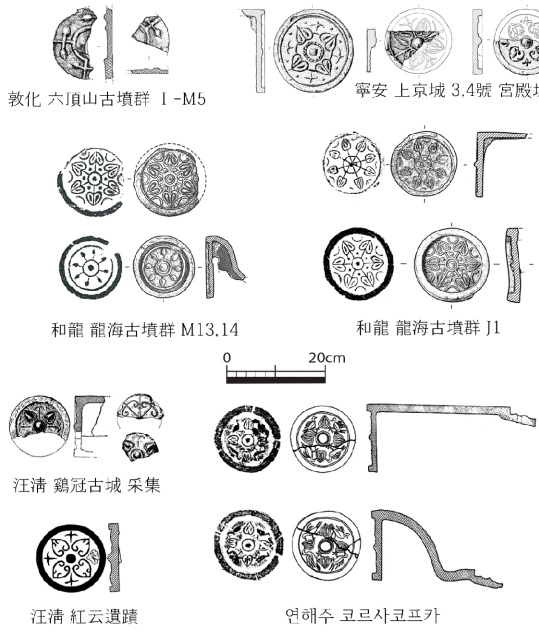
된다. 이와 비교되는 자료로 역심엽형 연판이 4분할된 와당은 敦化 六頂山 I-M5(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汪清 紅云遺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9), 寧安 上京城 3 · 4號 宮殿址(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출토품과 비교된다. 그러나 연판이 역심엽형이 아닌 단판형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연뢰문은 和龍 龍海古墳群 M13 · 14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자방과 연판이 연결되는 문양에서



[도면 5] 칠도하자 유적 수습 및 출토유물 일괄(縮尺不同,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 吉林市博物館 1993 에서 재편집)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역심엽형 연판+鳥文' 와당은 연해주 코르사코프가 출토품과 유사하다.

칠도하자 유적 출토 와당의 연대와 관련하여 宋玉彬은 열판문(연판문 · 변형연문)과 사분법 구도 와당의 형태적 특징은 고구려 문화 요소의 영향이 유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유적에 사용된 와당의 연대를 성왕 대화여가 상경으로 환도한 시점[復還上京, 794년]보다 늦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연판수대문(역심엽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연대의 하한은 문왕 대흠무의 집권 시기보다 늦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宋玉彬 2023: 245).



[도면 6] 칠도하자 유적 출토 수막새의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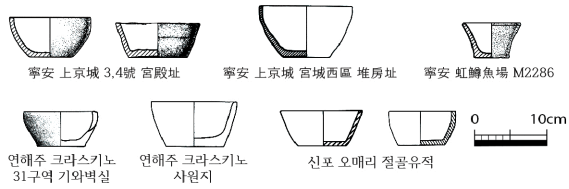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암막새와 수막새의 선행 연구성과를 염두에 둔다면 칠도하자 유적에서 출토된 암막새와 수막새는 8세기 후반 혹은 그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파편으로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8엽으로 복원되는 연뢰문이 龍海古墳群 M13 · 14호 출토품과 비교되는데, 龍海古墳群 M13 · 14호가 강왕 대숭린의 능으로 비정(최정범 2025)됨을 염두에 둔다면 9세기 전반까지 연대를 하향시켜 볼 여지도 상존한다.

2. 토기

고운 니질 점토로 제작된 황갈색의 杯로 30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기단부 북쪽과 북동쪽 모서리에 3개 군으로 군집을 이룬 상태로 개별 개체가 직치되어 있거나 몇 개체가 겹쳐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일부 杯의 내부에서는 식품이 탄화된 흔적도 일부 잔존한 상태였다. 구체적인 토기군의 출토 지점은 기단부 북쪽의 중앙 초석 사이에서

1개의 군을 이루고 그에서 서쪽으로 1m 떨어진 지점, 그리고 그에서 다시 서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군집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다. 10여 개의 杯가 겹쳐져 있거나 단독 직치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유적이 점유되던 와중에 모종의 연유로 갑작스럽게 폐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杯는 전반적으로 평저이며 구순의 형태와 외반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크기는 기고 5.5~6.5㎝, 구경 10~10.5㎝, 저경 6.5㎝로 전반적으로 규격의 대차는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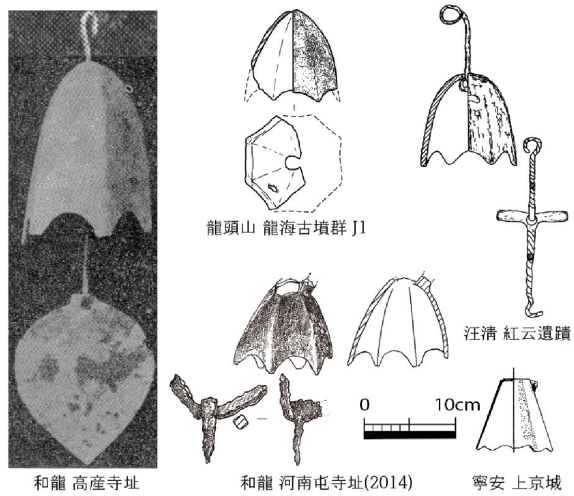
이와 유사한 杯는 발해 영역 내에서 간헐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기고 4.9~7.2㎝, 구경 9.4~13.0㎝, 저경 5.9~8.0㎝로 칠도하자 유적 출토품과 대차가 없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연대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다만 上京城 3,4호 宮殿址 출토 杯는 앞 절에서 살펴본 4분할 역심엽형 암막새와 공반되었으므로 8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점으로 비정할 수 있다. 크라스키노 31구역 기와벽실에서는 8세기 중엽-9세기 전반의 邢窯 백자 구연부편이 공반(崔正凡 2022: 122)되었고, 크라스키노 사원지 출토품은 거란계토기 · 사이부일면편호와 공반된 점을 고려하면 9세기 후반-10세기 중엽 경으로 비정(홍보식 2016: 172~175)된다.



[도면 7] 칠도하자 유적 출토 杯의 비교자료

3. 풍탁

유적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철제이며 주조로 제작된 탁신은 절반 가량만 잔존한다. 연결고리는 탁신에서 30㎝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풍탁의 형태와 유물 출토 당시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면 본래 하나의 유물이 폐기과정 중 분리된 것으로 판단



[도면 8] 칠도하자 유적 출토 풍탁의 비교자료

된다. 현재까지 발해 유적에서 풍탁의 출토 사례는 손에 꼽히는데 和龍 高産寺刹址(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何明 1985), 河南屯寺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등의 사찰유적과 龍頭山 龍海古墳群 J1의 의례유적, 汪清 紅云遺蹟, 上京城(付慶滿 外(방학봉 역) 1993) 등 사찰 혹은 의례와 관련된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풍탁이 사찰의 전각 처마 끝이나 탑의 옥개석 끝에 달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莊嚴具이자 불교의 梵音具(서미미 2021)라는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풍탁의 출토 사실은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4. 계단 주변 수습 碑片

1990년의 발굴조사 당시 2개의 비석편이 수습되었다. 상대적으로 큰 碑片은 계단 위쪽의 첫째 단과 둘째 단의 사이에서 비문의 면이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갈색 화강암 재질이며 뒷면과 측면은 잘 다듬어진 상태이다. 잔존 폭 50㎝ · 잔존 높이 55㎝ · 두께 5㎝ 정도이다. 잔존 비면의 상부에는 9행으로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으며, 각 행의 글자 수는 균일하지 않다. 비문의 글자들은 희미하여 명확하게 판독되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만 희미하게 식별 가능하며 서체는 해서와 예서의 중간이다. 글자 크기는 4×4㎝ 정도이다. 하단으로 본문보다 조금 크게 '行業淨神…'의 문자가 식별되며 글자 크기는 7×7㎝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碑片은 계단 아래 둘째 단의 서쪽에서 발견되었고 재질은 상대적으로 큰 碑片과 대차가 없다. 이 碑片에서는 '寸'이 식별된다. 두 碑片은 동일한 비석의 파편으로 추정된다(吉林市地方志編輯委員會 1994: 189).

이상에서 보듯 건물지의 계단 주변에서 수습된 碑片에서 5자 정도의 글자가 식별되었는데, 특히 '行業淨神…'의 구절이 확인되고, 이는 유적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큰 비문에서 식별되는 '行業淨神…'을 行業과 淨神으로 나누고, 이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사용되는지 唐代 묘지명의 사례들과 비교 검토[3]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行業은 '…儒分八並 潤行業於謨謀…[4] (유학8파의 학문에 견줄만한 식견과

3) 이하의 묘지명 원전 내용은 浙江大学图书馆 古籍碑帖研究与保护中心에서 제공하는 中國歷代墓志數據庫(http://csid.zju.edu.cn/tomb/stone)에 게시된 탁본 사진과 판독문을 참고하였다.

4) 「大唐故護軍李君墓誌銘并序」(665年)

사려 깊은 지혜로 행실이 아름답고 윤택했다)', '…優遊泯物 洞澈止持 威儀行業 為時之師…[5] (여유롭게 노닐며 나와 사물의 구분을 없애고 마음을 맑게 통찰하며 그침과 지킴을 온전히 하니 단정한 풍모와 바른 행실은 이 시대의 스승이 될 만하다)', '…於公行業 素所詳悉 得實刻銘…[6] (공의 행적을 소상히 알고 있으므로 사실만을 담아 비석에 새긴다)', '…故得備詳府君之行業約以文誌…[7] (그러므로 부군의 행적을 자세히 갖추어 알 수 있기에 이를 글로써 요약하여 기록한다)', '…以先師之行業玄懿…[8] (스승의 행적이 그윽하고 아름답기에)'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 비문들에서 行業은 모두 행적이나 행실 등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다.

반면 淨神은 行業에 비해 사용례가 희소한데, '…鎭心境以仁山 淨神源以德水…[9] (어짊을 산처럼 굳건히 삼아 마음의 흔들림을 진정시키고, 덕성을 물처럼 맑게 끌어올려 정신의 근원을 정화하였다)', '…淸淨神靈 庶幾銘曰…[10] (깨끗하고 신령스러운 영전에 마음을 담아 본격적인 찬가를 읊는다)'와 같이 말 그대로 정신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心本淸淨而無境者也…[11]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해서 경계가 없다)'와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나 개별적으로 깨끗함, 신통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파손된 비문의 '行業淨神…'은 행위와 정신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의미로 '行業 / 淨神…'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 혹은 앞서 살펴본 「百岩大师碑」의 용례를 염두에 둔다면 '行業淨 / 神…'으로 '행업이 맑고, 정신은…' 정도의 해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원문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행동과 정신에 관련된 구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상에서 보듯 칠도하자 유적은 단일 유구임에도 불구하고 암막새 · 수막새 · 수키와 등의 와전류와 30여 점의 토기 杯, 풍탁, 碑片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와 곱새로 지붕이 장식되고 풍탁이 매달려 있으며 비석이 확인되는 점은 건물지의 위계와 성격을 가늠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유적의 연대는

---

5) 「有唐東都安國寺故上座韋和上墓誌銘」(785年)
6) 「唐故衡王府長史致仕石府君墓誌銘」(808年)
7) 「唐故揚州大都督府士曹參軍張府君合祔墓誌銘」(811年)
8) 「安邑縣報國寺故開法大德泛舟禪師塔銘」(822年)
9) 「大唐故處士京兆田君墓誌銘并序」(668年)
10) 「唐故張禪師墓誌銘」(768年)
11) 「唐故章敬寺百岩大师碑铭」(815年)

현재로서는 수막새의 와당 문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8세기 중엽~9세기 전반을 칠도하자 유적의 점유 기간으로 보아도 좋다.

Ⅳ.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재인식

1. 기존 견해의 재검토

이상에서는 교하 칠도하자 유적의 보고문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유적의 입지와 유구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하여 재검토 해 보았다. 이에 칠도하자 유적은 자연구릉 정상부에 단독 조성된 특수한 목적의 건물지로서, 와당과 치미 등의 장식기와가 사용되었고 풍탁 등이 공반된 점으로 미루어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유적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적의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터인데, 발굴조사 이후 최근까지 머리말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유적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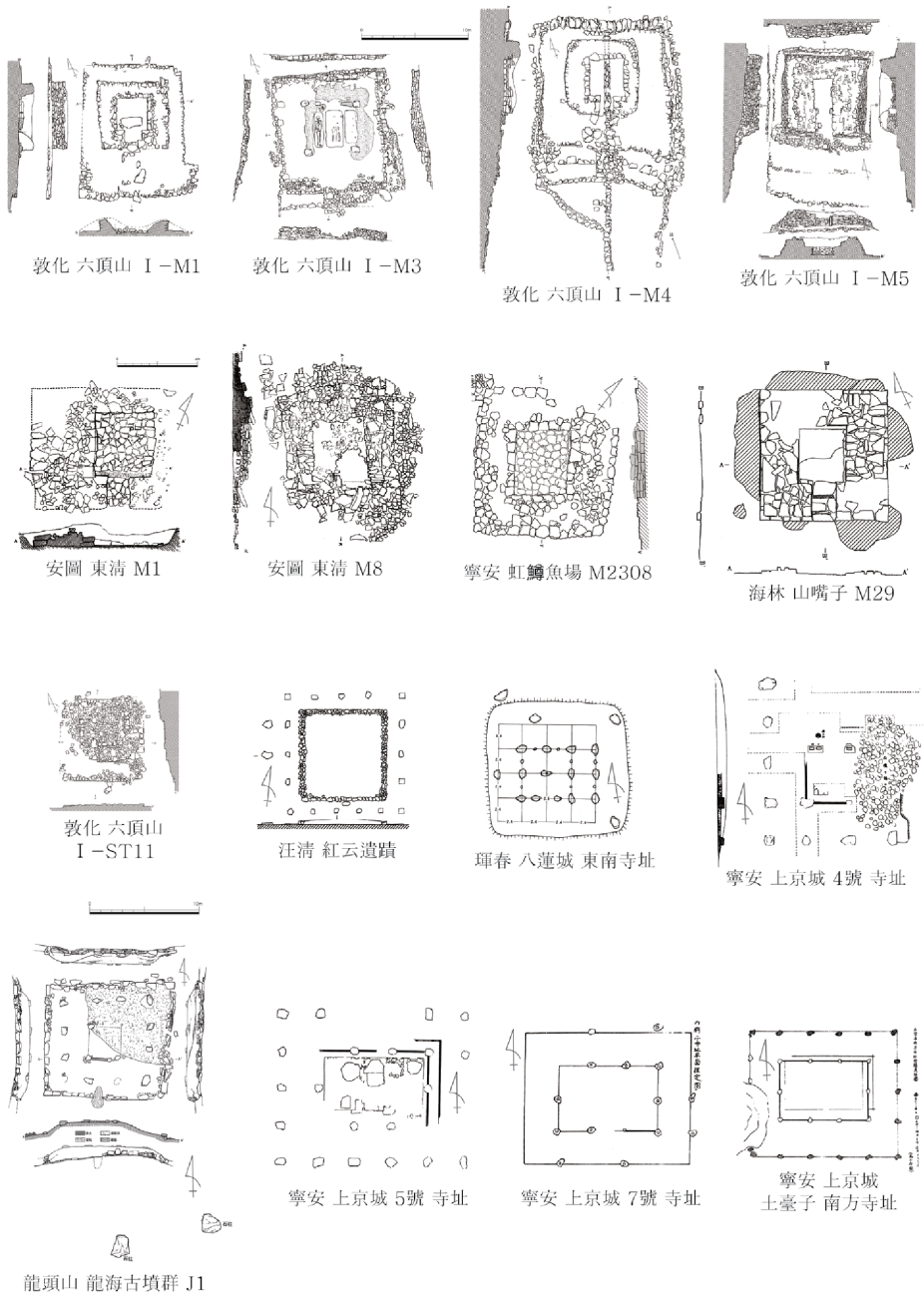
[표 1] 칠도하자 유적과 비교 고분의 규모 비교

유구	기단부 규모(㎝)		주체부 규모(㎝)	
	길이	너비	길이	너비
교하 칠도하자	740	740	160	100
六頂山 Ⅰ-M1	1240	950	300	290
六頂山 Ⅰ-M4	1200	1300	350	320
六頂山 Ⅰ-M5	950	930	280	170
東淸 M1	560	300	270	260
東淸 M8	680	570	290	270
虹鱒漁場 M2308	696	736	320	260
山嘴子 M29	660	650	270	230
三道中學 M2	650	710	320	290

먼저 고분으로 보는 견해인데, 앞서 언급하였듯 彭善國(2010) · 王志剛(2014) · 宋玉彬(2023)과 구난희(2019) · 박유정(2025)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견해로, 중심시설 중앙에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고, 유구의 전반적인 형태가 묘상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체부 내에서 인골이나 부장품 등 매장과 관련된 징후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암묵적으로 고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교하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와 비교해 볼 만한 유적으로 敦化 六頂山 Ⅰ-M1 · 3 · 4 · 5, 安圖 東淸 M1 · 8, 寧安 虹鱒漁場 M2308(黑龍江省文

物考古研究所 2009), 海林 山嘴子 M29(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三道中學 M2(魏存成 2024)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매장주체부를 둘러싸고 기단이 조



[도면 9] 칠도하자 유적과 비교되는 고분 및 사원유적

성된 형태이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270~350㎝ · 너비 170~320㎝인 반면, 칠도하자 유적의 주체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칠도하자 유적의 기단부 규모가 安圖 東淸, 寧安 虹鱒漁場, 海林 山嘴子 · 三道中學 유적보다 큰 데 반해 주체부의 규모가 소형인 점에서 칠도하자 유적을 확실하게 고분으로 보는 데 주저하게 된다. 또한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기단의 앞으로 7단의 계단이 조성된 점에서도 비교되는 고분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덧붙여 칠도하자 유적이 고분이라면 그 주변으로 중 · 소형의 고분이 밀집되어 분포하거나, 능선을 달리하여 일정 규모의 고분군이 존재함이 자연스러울 터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칠도하자 유적 반경 5㎞ 내에 발해 고분군으로 특정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까지 지표 및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결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칠도하자 유적 주변에서 발해 고분군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을 덧붙인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지표 및 발굴조사 결과만을 두고 보건대 칠도하자 유적을 반드시 고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12]이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 당시 계단 주변에서 출토된 비석 파편의 존재인데,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이 고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묘지명의 파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4기의 묘지명(효의황후 · 순목황후 · 정혜공주 · 정효공주)과 비교할 때 서체의 크기(1.4~2.0㎝) 면에서 칠도하자 유적 출토품을 묘지명으로 보기 주저된다. 오히려 상경성 2호 궁전지에서 출토된 陶版位(5.2㎝)와 鴻臚井石刻(3.7㎝)의 글자 크기와 근사하거나 큰 점은 칠도하자 유적의 碑片을 반드시 묘지명으로 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찰 등의 종교시설로 보는 견해인데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자들의 견해와 이를 따른 연구들(方學鳳(林相俓 譯) 1998; 양은경 2010)에서는 대체로 칠도하자 유적을 사찰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되는 유적으로 汪淸 紅云遺蹟, 琿春 八連城 東南寺址(齋藤優 1978), 寧安 上京城 4 · 5 · 7 · 土臺子 南方寺址(東亞考古學會 1939; 田村晃一 2005) 등이 참고된다.

이 유적들은 평면 回子形이라는 데서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팔련성과 상경성 일대의 사찰지에서 보듯 중앙의 主佛像이 봉안되는 공간은 칠도하자 유적에서는

12) 한편 吉林省 和龍의 서고성 남쪽에 단독 조성된 河南屯古墳이 존재한다. 그러나 河南屯古墳에서는 매장주체부와 그 내부에 대장식구 등의 부장 유물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성격 등을 염두에 둔다면 칠도하자 유적과는 성격이 다른 단독 고분에 해당하므로 동일선상에서 고분으로 이해하기에는 주저된다.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반 사찰지는 건물지의 중앙이 높게 조성된 데 반해 칠도하자 유적은 기반층을 굴착하고 반지하식의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칠도하자 유적이 금당지와 같은 사찰로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2. 七道河子 유적의 재인식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며, 그와 비견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데, 고분이나 사찰로 명료하게 구분하기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의례와 관련된 유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殯殿으로 사용된 공간이거나 정기적인 의례 행위가 이루어진 祀廟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敦化 六頂山 Ⅰ-ST11, 龍頭山 龍海古墳群 J1은 칠도하자 유적을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六頂山 Ⅰ-ST11은 1구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약 24m 떨어진 지점에 Ⅰ-M4호가 위치한다. 이 유구에 대한 해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평면 回子形으로 길이 7.4m · 너비 7.5m이며 상부에서 토기편과 관정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구의 남동쪽으로 유사한 형태의 방형집석유구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의례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龍海古墳群 J1은 용해고분군의 북동쪽 끝의 2호 대지상에 단독 조성되었으며 평면 回子形이며 길이 8.2m · 너비 8m이다. 내부는 한 변 2.8m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유구의 주변에서는 수막새 · 수키와 · 평기와 등의 와전류와 금동장식 · 풍탁 · 철정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특히 건물지 남동쪽에 초석 2기가 확인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남북 축선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판단된다. 이 유구에서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3 · 4호 대지와 5호 대지의 동쪽 일부가 조망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殯殿이나 왕실 제사가 이루어지던 祀廟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제기(彭善國 2025: 53; 최정범 2025: 183~185)된다.

이상의 六頂山 Ⅰ-ST11호와 龍頭山 龍海古墳群 J1호의 평면 형태와 규모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중심시설의 반지하식 시설의 유무에서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다만 龍海古墳群 J1호의 남동쪽에 위치한 출입시설로서 초석의 존재는 칠도하자 유적의 출입 시설로서 계단이 조성된 점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은 피장자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던 殯葬의 장소로 기능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순목황후 묘지명의 '以延平二年四月廿四日崩 殯于鮮卑不易山原(연평2년 4월 24일에 돌아가시니, 선비 불이산 언덕에 임시로 모셨다)'는 기록이 새삼 주목된다. 순목황후가 용두산고분에 안장되기 전에 안치된 곳인 '선비 불이산'의 위치와 관련하여 도성인 상경용천부의 부근(彭善國 2025: 51) · 발해 경내의 모처(강진원 2025: 102) · 거란의 땅이거나 요동의 변경 어딘가일 가능성(권은주 2025: 38~39) · 선비와 오환의 발상지인 선비산과 오환산 가운데 선비산(宋基豪 2025: 24)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위치가 어디이든 최종 매장지가 아닌 점은 자명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임시 안치되었던 것으로 봄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칠도하자 유적이 사망한 피장자가 최종 매장지에 안장되기 전까지 임시 안치된 장소인 殯殿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만하다. 유적의 평면 형태와 출토 유물군이 龍海古墳群 J1호와 비교되는 점, 중심시설의 규모가 길이 160㎝ · 너비 100㎝임을 염두에 둔다면 목관 1개 정도의 안치가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殯殿이라고 할 때, 유적 반경 5㎞ 안팎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발해고분군의 분포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13], 칠도하자 유적의 중심시설에서 葬具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약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殯殿의 성격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친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칠도하자 유적은 祀廟와 같은 의례적 성격의 건물지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육정산과 용두산의 의례 관련 유구와의 유사성과 출토유물군의 성격, 殯殿의 가능성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추론할 만한 문헌 기록의 존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해와 관련된 기록에는 의례를 추론해 볼 만한 직접적인 기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 중 淫祀(祠)[14]에 대한 내

13) 고분(군)의 경우 지표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蛟河市 일대에 정밀지표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지표조사 결과를 두고 고분군의 부재를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칠도하자 유적 주변에서 지표 및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이 고분군의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그렇다면 유적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이에 대해 『禮記』 曲禮 下에는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이라 하여 제사 이행자의 본분에 상응하지 않은 제사를 의미한다(정서윤 2024: 150~151).

용에 새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불교를 믿지만 淫祀(祠)가 많고 여러 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사서에 따라 후속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周書』와 『北史』에서는 나무를 조각하여 부여신(하백의 딸)을 만들어 모시는 곳과 그 아들인 登高(高登)신을 모시는데, 모두 官司를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수호[15]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6세기 전반 이후 시조의 권위에 기대어 정국 쇄신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한 결과로 시조의 신성성을 왕이 직접 체득하고, 친사의 행행에 따른 제의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한 특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강진원 2021: 162~178).

한편 『舊唐書』와 『新唐書』에는 왕이 직접 영성 · 일 · 가한 · 기자신을 섬기며 제사 지내는 모습[16]이 확인된다. 이는 7세기 이후 새로이 나타난 현상으로 종교적 권위를 통해 여러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고구려 왕과, 그 구심력으로 어려움을 무마시키려는 귀족 세력의 이해가 합치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강진원 2021: 94~107).

이상과 같이 고구려 중앙에서 음사를 주관해 왔던 것으로 봄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그러한 현상이 고구려의 도성과 그 주변의 중앙 지역에만 관찰되는 현상인지, 고구려의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는지는 기록 자체만으로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료로 遼東城 경내에 존재한 朱蒙祠의 존재[17]가 주목된다. 갑옷과 창을 神物로 제사 지내던 요동성을 고구려가 장악한 이후 고구려인이 유입되며 주몽 신앙이 퍼지고, 어느 시기에 그 전 시기부터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믿어지던 신물과 주몽을 연관지어 숭배케 되었던 것으로 요동성 지역과 주민의 고구려화를 의미한다(노태돈 1999: 366).

---

15) 『周書』 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 上 高麗, "敬信佛法 尤好淫祀. 又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登高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與朱蒙云."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高麗, "信佛法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 朱蒙云".

16) 『舊唐書』 卷一百九十九 上 列傳 第一百四十九 上 東夷 高麗, "其俗多淫祀, 事靈星神, 日神, 可汗神, 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伍 東夷 高麗, "俗多淫祠 祀靈星及日, 箕子, 可汗等神. 國左有大穴曰神隧, 每十月 王皆自祭."

17)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伍 東夷 高麗, "(貞觀)十九年…(遼東)城有朱蒙祠, 祠有鎖甲銛矛, 妄言前燕世天所降 方圍急, 飾美女以媚神, 誣言朱蒙悅, 城必完."
『册府元龜』 卷第三百六十九 將帥部三十 攻取第二 李勣, "高麗大城皆立朱蒙廟 蓋基先祖. 聞兵將至, 粉飾美女 進朱蒙爲婦, 日搥牛以祭之 夷巫鼓舞 云朱蒙大悅 城必克全"

이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주몽에게 제사지내던 사당이 고구려의 지방인 요동성 내에 존재했다는 점이며, 『册府元龜』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 지방 거점의 大城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朱蒙祠의 존재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원칙적으로 유교적 예제와 맞지 않으나 주몽의 권위를 통하여 지역 지배를 공고의 하려는 의도(강진원 2021: 264~266)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념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왕이 제사를 주관하며 관사를 설치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관리된 중앙과는 달리 지방 거점 지역에 조성된 주몽사의 관리와 제사 주관은 지방의 褥薩이 중앙의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한편 고려시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宣和奉使高麗圖經』[18]에 묘사된 東神祠는 정전에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 만든 여인 형태의 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19]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고구려의 朱蒙祠에서 고려의 東神祠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깎아 만든 神像이 안치된 공간의 존재는 주목할만하다.

현재로서는 발해 자체의 사실을 전하는 문헌 기록상에는 祀廟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흐름상 고구려와 고려에서 祀廟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존재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20]

칠도하자 유적이 祀廟로 기능하였다면 길이 160㎝ · 너비 100㎝의 협소한 반지하상의 중심시설 내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례의 대상이 모셔지고, 그 입구의 좌우로 높이 1.2m 가량의 石柱가 장식되며 외곽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의례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유

[표 2] 칠도하자 유적과 비교 유구의 규모 비교

유구	기단부 규모(㎝)	
	길이	너비
교하 칠도하자	740	740
六頂山 Ⅰ-ST11	740	750
龍海古墳群 J1	820	800
경주 동산리 산47-1	530	560
상주 청하리	600	570

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id/cnkd)

1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十七 祠宇 東神祠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帝幕蔽之, 不令人見神像. 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 舊例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

20)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해 의례 유적의 존재 여부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 유적과의 비교와 동시기 당,신라의 의례 관련 유적들과 상호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발해 유적의 특수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추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행동과 정신에 관련된 '行業淨神…'의 비석의 출토 정황과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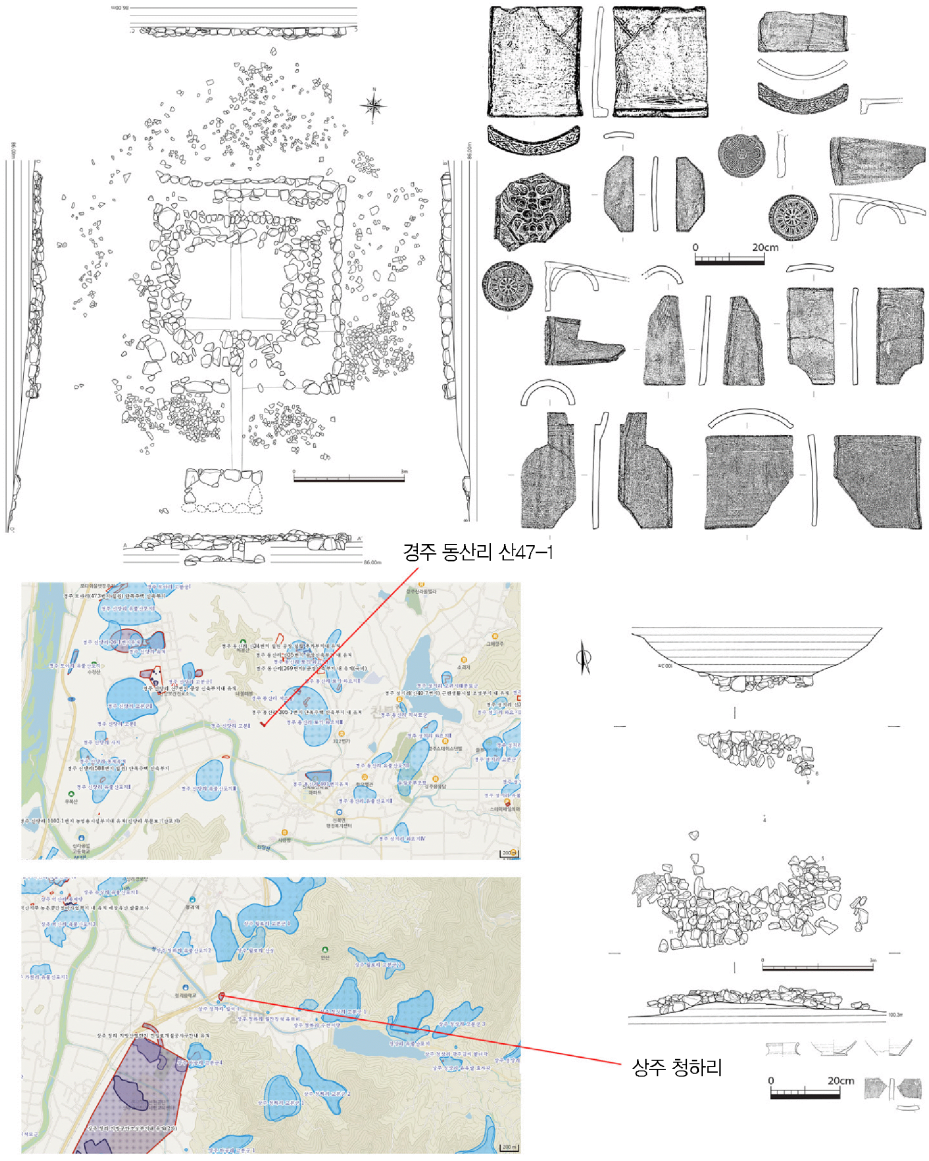
다만 칠도하자 유적이 의례 대상을 안치한 의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발해 유적에서는 이와 비교할만한 사례들이 쉬이 찾아지지는 않는다. 반면 동시기 통일신라의 유적에서는 이에 견주어 볼 만한 사례들이 확인되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유적으로 서쪽으로 형산강이 흐른다. 반경 5㎞ 이내에는 신당리고분군과 성지리고분군 등이 인접하다. 구릉 정상부 아래의 비교적 완만한 남사면 구릉 정상부의 기반층을 일부 절토하고 주변을 정지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길이 5.3m · 너비 5.6m의 방형기단을 조성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면에 배례석이 별도로 부가되어 있다. 유물은 기단석열을 따라 암막새 · 수막새 · 귀면와 · 암키와 · 수키와 등 각종 와전류가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대체로 9세기초(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1)로 비정된다.

상주 청하리 유적은 서쪽으로 병성천이 흐르며 반경 5㎞ 이내에 마공리 · 청리 고분군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의 기반층을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방형기단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동 · 서측 석렬이 일부 유실되어 평면 형태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잔존 규모는 길이 6m · 너비 5.7m 정도이다. 유물은 대부분 파편의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기의 호편과 대부완편, 중판 선문이 타날된 기와편 등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8~9세기 무렵 유적이 운용(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1)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듯 평면 回子形의 방형 건물지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점은 칠도하자 유적과 입지나 유구의 형태 면에서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 상주 청하리 유적은 고분과 관련된 의례용 건물의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귀족들과 같은 유력 혈족의 家廟로 추정(차순철 · 박영효 2022)되기도 한다.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을 발해 유적과 직접 결부시켜 이해하는 데 나름의 한계는 있으나 구릉 정상부에 평면 回子形의 건물지가 단독 조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의례와 관련된 기능을 하였다는 점은 칠도하자를 비롯한 발해의 의례 관련 유적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참고자료로 비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고구려 말기 淫祀 · 朱蒙祠와 관련된 기록들과 고려 東神祠의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유적으로 敦化 六頂山 I-ST11, 龍頭山 龍海



[도면 10] 통일신라 祀廟 유적의 사례 (유적분포현황: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 참조)

古墳群 J1과 더불어 蛟河 七道河子 유적은 발해 의례의 일 단면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새로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어떠하든 상경용천부에서 부여부로 향하는 거란도 노선상에 위치(윤재운 2026: 80~83)한 의례공간으로서의 칠도하자 유적에는 사람과 숭배 대상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종교전문가(사제)와 비-인간 요소를 신성한 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신성의 경관, 인간의 봉헌을 물질화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질문화로서의 의례용 용품과 신화적 이야기와 의례가 공존(이성주 2023: 9)했을 것이다. 특히 칠도하자 유적을 사원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 종교의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구조를 통해 얽혀 있는 포괄적 양식의 공간으로 같은 근린집단에 살거나, 같은 농지를 경작하거나, 그 밖의 유대를 가진 가족들로 구성된 집단들의 공동체적 장소로 기능(Clifford Geertz(문옥표 譯) 1998: 213~214)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 유적이 家廟나 殯殿이라면, 七道河村 일대에 몇 그룹의 고분군이 존재해야 할 터이나, 현재까지 발해 고분군의 분포 가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의례가 행해지던 祀廟라고 한다면, 그에 모셔졌던 대상은 누구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규명하기에는 발해 자체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칠도하자 유적은 기왕의 견해에서처럼 사찰이나 고분으로 보기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오히려 유적의 입지나 유사 유구들의 비교를 통해 의례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이에 殯殿 혹은 祀廟일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한편 칠도하자 유적 반경 5㎞ 이내에 현재까지 뚜렷한 발해 유적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칠도하자 유적이 명확하게 殯殿인지 祀廟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나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유적의 입지와 출토 유물의 성격으로 미루어 어떠한 형태로든 의례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문제들은 향후 증대되는 발굴조사 자료의 증대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Ⅴ. 맺음말

中國 吉林省 蛟河市 天崗鎭 七道河子村에 위치하는 유적은 七道河村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져 七道河와 冰葫蘆溝河가 牤牛河로 합수하는 북안의 높게 솟은 산기슭 사이 작은 산등성이인 北大山 자락에 위치한다. 유적의 남쪽으로 5m 떨어져 松花江의 지류인 牤牛河가 흐르며, 서쪽으로 吉林市, 동쪽으로 蛟河市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보고자는 건축부재 등이 발해 유물에 근사하므로 칠도하자촌 유적을 사찰 등의 건축유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경용천부에서 遼의 임황도성으로 향하는 거란

도 상에 유적이 위치하므로 역참 혹은 모종의 종교적 성격의 건축유적으로 보거나 고분으로 보는 등 유적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칠도하자 유적의 조사 내용 자체를 재검토하여 유구의 구조와 특질을 살피기에 앞서 유적의 성격과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굳이 중심시설[天井] · 기단부[地面鋪石] · 초석[柱础石] · 계단[級石] · 지반보강시설[護坡石]로 환치하여 살펴보았다.

유물은 와당 · 평기와 · 치미편 등의 기와류와 토기, 풍탁 등 비교적 다양한 유물들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암막새는 단부에 사선 방향의 각목문이 앞뒤로 부가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대롱(구멍)문 · 사엽문 등의 도안이 시문되거나 지두문이 압인되어 있다. 수막새는 역심엽협의 연판(수대)문 · 변형연문 · 권운유정문 · 연뢰문 등이 확인된다. 선행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암막새와 수막새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비정된다. 토기는 황갈색의 杯로 30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기단부 북쪽과 북동쪽 모서리에 3개 군으로 군집을 이룬 상태로 개별 개체가 직치되어 있거나 몇 개체가 겹쳐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한편 莊嚴具이자 불교의 梵音具인 풍탁과 '行業淨神…'名 碑片은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기에는 주체부의 규모가 소형인 점에서 확실하게 고분으로 보는 데 주저하게 된다. 또한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기단의 앞으로 7단의 계단이 조성된 점에서도 비교되는 고분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칠도하자 유적이 고분이라 한다면, 그 주변으로 중 · 소형의 고분이 밀집되어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거나, 능선을 달리하여 일정 규모의 고분군이 존재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유적 반경 5㎞ 내에 발해 고분군으로 특정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사찰 등의 종교시설로 보는 견해인데, 평면 回子形이라는 데서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팔련성과 상경성 일대의 사찰지에서 보듯 중앙의 主佛像이 봉안되는 공간은 칠도하자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반 사찰지의 중앙이 높게 조성된 데 반해 칠도하자 유적은 기반층을 굴착하고 반지하식의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칠도하자 유적이 금당지와 같은 사찰로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결국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이나 사찰로 명료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광의의 관점에서 의례와 관련된 유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六頂山 I-ST11, 龍海古墳群 J1이 형태와 구조 면에서 칠도하자 유적과 근사한 모습을 띤다.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은 의례와 관련된 공간이거나 피장자의 시신을 임시

로 안치하던 殯葬의 장소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殯殿이라면 七道河村 일대에 몇 그룹의 고분군이 존재해야 할 터이나, 현재까지 발해 고분군의 분포 가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중국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의 의례 관련 기록들을 염두에 둔다면 칠도하자 유적은 반지하상의 중심시설 내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의례의 대상이 모셔지고, 입구의 좌우로 높이 1.2m 가량의 石柱가 장식되며 외곽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의례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祀廟라면 그에 모셔졌던 대상은 누구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규명하기에는 발해 자체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는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의례와 관련된 건축물로 殯葬의 장소 혹은 祀廟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선에서 그친다. 이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향후 증대되는 발굴조사 자료의 증대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발해 의례의 고고학적 연구를 화두로 여기며 이를 장기 지속적인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6. 8. 26 | **심사완료일** 2026. 9. 20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周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册府元龜』 (中華書局 標點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https://db.history.go.kr/id/cnkd)

浙江大学图书馆 古籍碑帖研究与保护中心 中國歷代墓志數據庫(http://csid.zju.edu.cn/tomb/stone)

강진원, 2021,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_____, 2025, 「순목황후 묘지명」과 9세기 초 발해의 풍경」, 『한국고대사탐구』5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1, 『尙州 遠墻里 · 靑下里 遺蹟』.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硏究」, 『한국고대사탐구』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권은주, 2025,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東北亞歷史論叢』90, 동북아역사재단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박유정, 2025,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의 사례와 보고서의 '묘상건축'의 인식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論叢』90호, 동북아역사재단.

方學鳳(林相份 譯), 1998, 『渤海의 佛敎遺蹟과 遺物』, 書景文化社.

付慶滿 外(방학봉 역), 1993,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발해사연구』3, 연변대학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1,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미미, 2021, 「한반도 출토 풍탁의 특징과 전개양상」, 『고고광장』제29호, 부산고고학연구회.

宋基豪, 2025, 「龍頭山 古墳群 발굴보고서의 검토」, 『震檀學報』125, 震檀學會.

양은경, 2010, 「渤海 上京城 佛敎寺院址의 建立年代와 佛像 奉安의 復原」, 『東北亞歷史論叢』27, 동북아역사재단.

연변박물관, 1993,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3, 연변대학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재운, 2026, 『발해로드-당,거란,신라,일본으로 가는 길』, 평사리.

이성주, 2023, 「종교와 의례의 고고학」, 『종교와 의례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제32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정동귀, 2015, 「발해 암막새에 대한 고찰」, 『高句麗渤海硏究』第52輯, 高句麗渤海學會.

정서윤, 2024, 「고려시대 '泛祀'의 용례와 관념 재검토」, 『韓國史學史學報』50, 韓國史學史學會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21, 『발해 고고학』,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6, 진인진.

차순철 · 박영효, 2022, 「통일신라시대 家廟 검토」, 『한국고대사탐구』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崔正凡, 2022, 「渤海 年代決定資料와 曆年代」, 『한국상고사학보』제118호,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25, 「용두산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과 능원」, 『東北亞歷史論叢』90, 동북아역사재단.

Clifford Geertz(문옥표 譯), 1998, 『문화의 해석』, 까치.

홍보식, 2016,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생산과 공급 시론」, 『한국고대사탐구』2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吉林大學邊疆考古硏究中心 外, 2017, 「吉林和龍"河南屯古城"復查簡報」, 『文物』12期.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1999, 「吉林汪淸縣紅云渤海建築遺址的發掘」, 『考古』6期.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六頂山渤海墓葬』,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和龍縣文物志』.

_____, 1987, 『蛟河縣文物志』.

吉林市地方志編輯委員會, 1994, 『吉林省志 文物志』, 吉林文史出版社

吉林市博物館, 1993,「吉林省蛟河市七道河村渤海建築遺址清理簡報」,『考古』2期.
宋玉彬, 2023,『渤海瓦當研究』, 文物出版社.
王志剛, 2014,「"冢上作屋"的考古學詮釋」,『考古』6期.
魏存成, 2008,『渤海考古』, 文物出版社.
_____, 2024,「黑龍江省海林三道中學渤海墓葬發掘記」,『邊疆考古研究』35, 科學出版社.
鄭永振, 1983,「和龍縣龍海古迹調查」,『黑龍江文物叢刊』2期
彭善國, 2010,「蛟河七道河村渤海遺址屬性辨析」,『東北史地』3期.
_____, 2025,「龍頭山渤海王室貴族墓地札記」,『地域文化研究』2025 · 06.
何明, 1985,「吉林和龍高産渤海寺廟址」,『北方文物』4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a,『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_____, 2009b,『寧安虹鱒魚場』, 文物出版社.
_____, 2012,「黑龍江省海林市山嘴子渤海墓葬」,『北方文物』1期.

東亞考古學會, 1939,『東京城』,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伍册.
田村晃一, 2005,「渤海上京龍泉府址の考古學的檢討」,『東アジアの都城と渤海』, 財團法人東洋文庫.
齋藤優, 1978,『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07

A Re-evaluation of the Bohai Qidaohezi Site in Jiaohe City, Jilin Province

Choi, Jung-Bum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Team Leader, Hanbit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site, situated in Qidaohezi Village, Tiangang Town, Jiaohe City, Jilin Province, is located independently at the foot of Mount Beidai on the northern bank of the Wangyou River. To date, scholarly consensus remains divided regarding the nature of the site, with hypotheses ranging from a post station and a Buddhist temple site to a burial complex. Accounting for these competing views, this study presents a rigorous re-examination of the site's structural layout and recovered artifact assemblage based on the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The structural remains consist of a building site featuring a concentric square layout (回字形), inside which a semi-subterranean stone chamber serves as the central feature. This central facility is bounded by plinth stones and enclosure walls, with a staircase constructed along the natural southward slope. The artifact assemblage includes concave eave tiles, convex eave tiles, chimi fragments, stemmed cups, and bronze wind bells, dating the site broadly from the mid-8th to the early 9th century. Notably, a stele fragment bearing the Chinese inscription "行業淨神…" was recovered near the staircase.

Based on its structural and artifact typologies, the Qidaohezi site exhibits strong morphological parallels with Feature I-ST11 at the Liudingshan site in Dunhua and Tomb J1 of the Longhai Tomb Group on Mount Longtou.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itu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vered material culture,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site likely functioned as a ceremonial facility—such as a place for provisional burial rites (殯葬) or an ancestral shrine (祀廟). Drawing upon precedents from Goguryeo traditions, the possibility that it served as a royal shrine dedicated to the founder or sovereign rulers of the Balhae Kingdom warrants serious consideration.

Key words : Balhae, Site in Qidaohezi Village, Tomb, Buddhist Temple, Provisional burial rites, Ancestral Shrine